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롯데쇼핑(주)은 8일 도청에서 총 1,000억원 규모의 관광호텔 건립 및 수반되는 행정적 지원 등을 약속하는 '전주 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관광호텔 건립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우범기 전주시장, 정준호 롯데쇼핑 대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형 MICE 복합단지 조성 '마침표'

전북자치도-전주시-롯데쇼핑, 종합경기장 부지 관광호텔 건립 투자협약 체결

전시·회의·숙박 기능 연결한 복합 인프라 구축 통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전주시의 대표적인 노른자 땅으로 통하는 옛 종합경기장 부지에 전북특별자치도 내 최대 규모 및 최고 시설을 갖춘 4성급 관광호텔이 들어선다. (관련기사 14면)

오는 2029년 관광호텔이 완공되면 현 종합경기장 부지는 명실상부한 전북을 대표하는 MICE 복합단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롯데쇼핑(주)은 8일 도청에서 총 1,000억원 규모의 관광호텔 건립 및 수반되는 행정적 지원 등을 약속하는 '전주 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관광호텔 건립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정준호 롯데쇼핑 대표 등 주요 관계들이 참석해 2011년 규모의 고급 관광호텔 건립 및 그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상호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투자협약에 따라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호텔 건립 과정에 필요한 소관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거해 투자보조금을 롯데쇼핑에 지원하기로 서명했다.

전주시도 협약에 따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처리와 '전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보조금 지원 등 행정에 관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사업 당사자인 롯데쇼핑은 오는 2029년까지 총 1,170억원을 투입해 201실을 갖춘 4성급 관광호텔을 건립하게 된다.

연면적 2만3,663㎡, 대지면적 3,300㎡로 조성될 관광호텔은 지하 4층, 지

상 14층 규모로 조성되며 이는 전주권의 L호텔과 비교해 객실 수가 더 많은 규모다.

건립될 관광호텔은 MICE 특화호텔로 불리는 것에 걸맞게 객실 외에도 250명이 수용 가능한 연회장을 비롯해 레스토랑과 비즈니스센터, 투프탑바, 수영장 등 전북자치도내 최고시설을 갖추며 방문객을 맞는다.

건립될 고급 관광호텔은 MICE 특화호텔로 조성될 수 있도록 올해 실시할 계획을 거쳐 오는 2026년 공사착공이 시작된다.

전북자치도와 시는 이번 협약이 단순한 호텔 유치 차원을 넘어, 컨벤션센터와 연계한 전북형 MICE 클러스터 완성의 핵심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전시·회의·숙박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복합 인프라 구축을 통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국제

행사 유치기반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준호 롯데쇼핑(주) 대표이사는 "문화와 전통이 살아있는 전주에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호텔 건립 후 전주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오늘의 협약은 전주 마이스산업의 글로벌경쟁력 제고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시는 오늘을 계기로 1,000만 관광객 도시에 걸맞는 관광 수용태세를 구축해 문화·전통·관광을 융합한 마이스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관광호텔이 전주에 들어서면 전북의 국제행사 유치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전북형 MICE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관광이 미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피지컬AI 산업 거점 '전북'

로봇·스마트 제조·물류·헬스케어 등에 AI 적용

민주 정동영 의원 주도 실증 예산 확보... 올해 추진

전북자치도, 지역 균형발전 핵심 거점 성장 전기 마련

전북이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 과방위 예결소위원장)을 중심으로 국회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과 대학이 협력해 '피지컬 AI 산업'의 실증 거점 예산을 확보하면서, 전북이 미래 산업을 선도할 기회를 잡았다. (관련사진 3면)

8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국회의원(전주을), 현대차 정현구 상무, 네이버 윤희영 이사, 리벨리온 신성규 CFO, 카이스트 김경수 부총장, 전북대 양오봉 총장, 성균관대 권영욱 부총장, 캠퍼스종합기술원 노상흠 원장 등 산업계와 학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번 성과를 기념하고 사업 추진 의지를 다졌다.

이번에 확보된 피지컬AI 실증 인프라 구축 예산은 국비 229억원,

지방비 및 민자 153억원이 더해져 총 382억원 규모로 올해 집행된다. 정부가 처음에는 반영하지 않았던 예산이었지만, 정동영 의원이 국회 과방위와 기재부를 설득해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어낸 것이다.

정 의원은 "이 사업은 새만금 개발 이후 30년 만에 전북이 손에 잡히는 미래산업을 갖게 된 역사적 성과"라며 "피지컬 AI 산업을 2030년까지 총 1조 원 규모로 키워 전북을 대한민국 AI 혁명의 선두주자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피지컬 AI는 로봇, 스마트 제조, 물류, 헬스케어 등 현실과 맞닿은 산업에 AI를 적용하는 기술이다.

이번 사업은 전주와 완주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전북대 전주캠퍼스와 완주 이서에서 5만 4천여 평의 부지를 조성하여 실증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전주-완주 통합 논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예산 반영은 전북 미래 산업의 관을 다시 짜는 계기"라며 "정동영 의원과 국회의 협력에 감사드린다. 전북자치도는 정부와 제도적 연계를 통해 성공적인 추진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운 의원도 "전주가 피지컬AI 산업의 전진기지가 돼야 한다"며 "지역 인재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석한 기업과 대학 관계자들도 큰 기대를 나타냈다. 현대자동차는 "AI와 모빌리티의 융합은 새로운 혁신의 길을 열 것"이라며 협력을 약속했고, 네이버와 리벨리온, 카이스트, 성균관대, 전북대도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은 "대학 부지와 연구인력을 적극 활용해 학생과 기업이 함께 연구하고 실험하는 현장형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AI는 한 세대가 6개월인 초격차 산업이며, 전북이 이번 기회를 잡지 못하면 또 다른 30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며 "국회 인위에서 1년 넘게 준비한 끝에 전북이 AI 주권 산업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예산 확보를 넘어, 전북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전북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바꾸는 새로운 주인공이 될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밤에 더 빛나는 순창군 나들이 명소

강천산 군립공원 야간개장

7월 15일 ~ 8월 25일 매일 야간개장
6월 15일 ~ 11월 8일 (매주 금·토요일 야간개장)

순창군

강천산